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최근 국내외 한의학 연구 동향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최민선, 김동일

ABSTRACT

A Review of Recent Oriental Medicine Studies on Female Sexual Dysfunction

Min-Sun Choi, Dong-Il Kim

Dept. of Ob&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Objectives: Female Sexual Dysfunction(FSD) is a common gynecologic condition and its prevalence is more higher than men. Despite its high prevalence and clinical importance, research on FSD is not enough in both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research tendency of recent oriental medicine studies on FSD and to suggest the following research on FSD.

Methods: We searched oriental medicine papers related to FSD published in the last 10 years(2001-2011) through Korean Medicine Gynecology Society database, KISS, RISS, NDSL, CNKI(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Pubmed.

Results: 26 papers were searched, then 18 papers of them were related to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8 papers of them were related to Korean Medicine(KM). In classification according to paper type, 16 papers were clinical study, 1 paper was experimental study, 2 papers were bibliographic study, and 7 papers were the other study. Then 5 papers of clinical study was Randomized Controlled Trial(RCT).

Conclusion: There was a lack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on FSD. On the base of this study, so further research is needed. Especially, Clinical trials such as RCT have strong objective evidence power in the viewpoint of Evidence Based Medicine(EBM) are needed.

Key Words: Female Sexual Dysfunction(FSD), Oriental Medicine, Korean Medicine(K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TCM), Acupuncture, Herbal Medicine

I. 서 론

성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며, 건강한 성생활은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고 휴식을 갖게 하는 생체 리듬의 촉진제로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1,2)}.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건강을 성과 관련하여 육체적, 감성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행복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성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여성의 성건강을 여성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정하였다³⁾.

일반적으로 최근에 국외에서 보고된 여성 성기능장애의 빈도는 22~38.4%이며^{4,5)},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성기능장애가 43%로 남성 성기능장애의 31%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⁶⁾. 국내의 경우는 평균 28.5세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43.5%가 여성 성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⁷⁾, 평균 39.7세의 20세 이상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서는 57.5%가 성기능장애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⁸⁾. 또한 남성 중 33.8%와 여성 중 54.2%에서 성기능장애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따라서 국내여성이 국외여성보다 성기능장애 빈도가 높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성기능장애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기능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남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의 발전에 비하여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

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의 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을 성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존치시켜 여성 성기능장애와 관련한 논의와 연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권위 향상과 성 의식의 개방 등으로 여성도 성적으로 능동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여성의 성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실제적인 유병률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 수요가 증가되면서 다방면에서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련한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또한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하여 여성 성기능장애의 정의와 분류, 진단과 치료, 그리고 관련인자 등 이론적 기초 연구들^{2,10-12)}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한의학 관련 연구는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 성기능장애는 심신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 여성 질환으로 한의학의 경우 신체적 요인과 정신심리적 요인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여성 성기능장애는 한의학, 특히 한방부인과적 접근이 우세할 수 있는 진료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체계적 연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에 저자들은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한 최근 국내외 한의학 연구들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관련 연구 방향에 도움을 주고 관련 연구를 추동하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최근 국내외 한의학 연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대표 의학논문 검색사이트를 통해 2001년 이후 약 10년간(2001년 1월 1일~2011년 6월 30일) 발표된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는 DSM-IV의 분류에 따라 크게 성욕구장애(성욕저하증, 성혐오증), 성흥분장애, 절정감장애, 성동통장애(성교통, 질경련)으로 분류되므로¹⁰⁾ 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 영어 질병명과 관련 단어를 대표 검색어로 하여 관련 논문이 최대한 검색되도록 하였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되 논문의 형식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1. 국내 논문 검색

국내 논문은 먼저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사이트의 내부 검색을 통해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논문 검색 system의 경우 고급 상세 검색 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관계로 검색어를 '성'으로 하여 검색한 후 관련 논문을 hand-searching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하였고, 이후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기타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추가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관련 논문을 최대한 빠짐없이 검색하기 위해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핵심 단어인 '여성성기능장애', '성기능장애', '성기능', '성욕', '성혐오',

'성흥분', '절정감', '성동통', '성교통', '질경련'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검색된 논문 중 한의학 관련 논문을 hand-searching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하였다.

2. 중국 논문 검색

중국 논문은 중국학술정보원(CNKI)의 醫學衛生(Medicine & Public Health) 카테고리에서 '女性性功能障礙', '性欲異常', '性欲障礙', '性欲低落', '性欲低下', '性厭惡', '性恐懼', '性喚起異常', '性喚起障礙', '性高潮異常', '性高潮障礙', '性高潮延遲', '性高潮缺如', '性高潮缺失', '性疼痛異常', '性疼痛障礙', '性交痛', '陰道痙攣'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하고, 검색된 논문 중 중의학 관련 논문을 hand-searching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하였다.

3. 기타 국외 논문 검색

국내와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 이외의 기타 국외 논문은 Pubmed를 통해 관련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어는 'female sexual dysfunction', 'female sexual disorder', 'female sexual function', 'sexual desire disorder', 'hypoactive sexual desire', 'sexual aversion disorder', 'sexual arousal disorder', 'orgasmic disorder', 'sexual pain disorder', 'dyspareunia', 'vaginismus'와 'chinese medicine', 'acupuncture', 'herbal'을 배합하여 사용하였고, 검색된 논문 중 한의학 관련 논문을 hand-searching하여 최종 논문을 선정하였다.

4. 최종 선정 논문

여성 성기능장애와 관련하여 발표된 한의학 논문을 위의 검색 방법대로 국내와 중국, 기타 국외로 나누어 검색한 결

과 최종적으로 국내 논문 6편, 중국 논문 18편, 기타 국외 논문 2편, 총 2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그러나 기타 국외 논문에서 검색된 2편의 논문은 국내 저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해외저널에 발표된 논문들로 최종 결과 분석에서는 국내 연구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논문을 한의학의 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박 등¹³⁾과 윤 등¹⁴⁾의 방법에 따라 크게 문헌연구, 실험연구, 임상연구 그리고 기타연구로 분류하고 논문의 원문 분석을 통하여 주요 연구 내용과 연

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국내 연구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논문 중 국내 논문은 총 8편이었으며, 그 중 문헌연구는 2편, 실험연구는 1편, 임상연구는 3편, 기타연구는 2편이었다. 국내 연구 목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omestic Korean Medicine Studies on Female Sexual Dysfunction

Author	Title	Year	Publication Journal
김동일 등	부인과 진료에 있어서의 성 문제에 대한 제기와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 연구 -한 인터넷 성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001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김동일	여성의 성 기능장애와 이의 임상과정에 관한 연구	2001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이재혁	한방신경정신과영역에서의 성기능장애에 대한 고찰	2003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이정은 등	갱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과 성만족도에 미치는 大造丸의 임상효과 보고	2005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김동일	여성의 성기능장애 평가 척도인 한글판 FSFI 척도의 임상시험 적용 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2008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Kim SO et al	The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extract on the relaxation response in isolated rabbit vaginal tissue and its mechanism	2008	J Sex Med
김동일 등	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성기능에 대한 홍삼의 효과 및 안전성 연구	2009	고려인삼학회지
Oh KJ et al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on sexual arousal in menopausal women: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crossover clinical study.	2010	J Sex Med

1) 문헌연구

국내에서 발표된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한 문헌연구는 2편이 있었는데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양방적 고찰과 이를 통한 한의학적 임상과정을 발표한 논문¹⁵⁾과 여성과 남성의 성기능장애에 대

해 한의학 고전을 바탕으로 한방신경정신과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¹⁶⁾이 있었다.

김¹⁵⁾은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방부인과 영역에서의 임상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기존 문헌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이를 통한 한의학적 임상과정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¹⁵⁾은 연구에서 여성 성기능장애의 분류, 성기능장애 치료의 일반원칙(증상의 파악과 원인규명, 치료과정의 유의점과 치료원칙, 여성 성기능장애의 치료방법), 주요여성 성기능장애의 유형별 치료(병인병기, 진단, 치료, 예후)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 진료과정은 교육과 치료가 모두 담보되어야 하며 치료 측면에서는 한약과 침치료 등을 통한 전체적인 심신의 조정과 국소 상태의 개선 및 성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기능은 心身이 함께 관여하는 과정으로 여성 성기능장애는 질병 특성 상 정신과와 부인과에 진료영역이 어느 정도 겹쳐질 수 있는 질병군으로 이러한 질병 특성에 따라 한방부인과 영역이 아닌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발표한 문헌고찰연구가 한 편 있었다. 이¹⁶⁾는 여성과 남성의 성기능장애에 대해 《黃帝內經》이래의 韓醫書와 中醫書를 참고하여 한방신경정신과적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각종 醫書에서 다빈도로 사용된 병명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내용을 고찰하였는데 여성 성기능장애와 관련하여서는 女性性苦潮障礙, 夢交, 성욕저하, 성욕항진, 縮陰(陰道痙攣), 성교동

통, 성험오증에 대해 한방신경정신과적 관점에서의 한의학적 병인병기와 변증론치, 침구치료 등을 고찰하였다. 성적인 측면에서 여성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동양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거의 모든 한의학 문헌에서 성기능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질환은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으며, 신경정신과적 관점에서 성기능장애는 肝(疏泄失常), 腎(恐則氣下), 心脾(思慮過度)의 손상을 주된 요인으로 보며 치료에 있어서는 침구치료, 한약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실험연구

국내 연구 중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실험논문은 1편이 있었는데 Kim SO et al¹⁷⁾은 토끼 질 평활근 조직에 대한 홍삼 추출물의 이완 작용과 그 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 처치를 통해 수축시킨 토끼 질 평활근 조직에 1-20 mg/mL의 홍삼 추출물을 농도별로 투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최고 85%까지 질 평활근이 이완되었으며, 작용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NO inhibitor (L-NAME), sGC inhibitor(methylene blue), inhibitor of Ca²⁺-activated K⁺ channels (TEA), ATP-sensitive K⁺ channel blocker (glybenclamide) 등을 함께 투여하여 홍삼 추출물의 이완 작용을 살펴본 결과 홍삼의 질 평활근 이완 작용은 일부 NO pathway와 hyperpolarization via Ca²⁺-activated K⁺ channels과 관련하여 작용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3) 임상연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임상연구로는 총 3편이 있

있는데 갱년기 여성의 성기능 개선에 대한 大造丸의 임상효과를 분석한 연구 1편¹⁸⁾과 홍삼의 성기능 개선 효과를 규명하는 RCT 연구(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대조군 비교, 교차 임상시험) 2편^{19,20)}이 있었다. 각 논문의 주요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ummary of Domestic Korean Medicine Clinical Studies on Female Sexual Dysfunction

Author	Subjects	Intervention	Duration	Results
이정은 등	갱년기 증상과 함께 질건조증과 성교통을 호소하는 폐경전후 여성 (n=7)	대조환 1회 2환(4 g) 1일 3회	8주	① Kupperman Index의 평균점수가 61.4점에서 30.2점으로 감소하여 갱년기 증상 개선 ② Menopause Rating Scale(MRS)의 질건조증 문항 점수가 2.3에서 0.43으로 감소하여 질건조 증상 개선 ③ MRS의 성생활 변화에 대한 문항 점수가 2.43에서 1로 감소하여 성생활 문제점 해소, 만족도 높아짐
김동일 등	한국판 FSFI 점수가 25점 이하인 성기능 저하를 호소하는 만 30세 이상 45세 이하의 건강한 기혼여성 (n=23)	시험군 : 홍삼분말캡슐 대조군 : 홍삼착향전분캡슐 1회 10캡슐(3 g) 1일 2회	6주-2주 (약물 소거기간) -6주	① FSFI(한국판성기능장애평가척도)와 SF-36(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척도) 점수가 두 군에서 모두 복용 전에 비해 향상되어 성기능 개선, 일반적 건강수준 향상,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나 홍삼과 대조약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② 성욕(desire)과 신체적 기능(PF)이 홍삼을 복용한 경우 좀 더 개선되는 양상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없음
Oh KJ et al	40-60세 폐경 후 여성(n=24)	시험군 : 홍삼분말캡슐 대조군 : 전분캡슐 1일 3캡슐(3 g)	8주-2주 (약물 소거기간) -8주	① 홍삼이 FSFI 하부 영역 중 성적 흥분(arousal)영역 점수를 3.10 ±0.87에서 3.50±0.72로 유의하게 개선시킴(P=0.006) ② GAQ(Global Assessment Questionnaire) 평가에서도 홍삼이 위약에 비해 유의하게 좀 더 나은 성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냄(P=0.046)

4) 기타연구
국내에서 발표된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기타연구로는 인터넷 성생활 상담코너의 상담내용 분석한 연구²¹⁾와 건강한

성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판 FSFI의 점수를 분석하여 여성 성기능장애 피험자 모집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²²⁾가 있었다.

김 등²¹⁾은 성에 대한 여성의 관심 증대와 부인과 임상에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방 부인과 진료에서 성 문제에 대한 제기와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부인과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주부 대상의 한 인터넷 부부 성생활 상담코너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2000년 6월 24일부터 2001년 4월 4일까지 이루어진 172건의 성생활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절정감 부전과 관련한 문의가 6.98%로 성기능 장애 중 가장 많은 상담 빈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성교통이 6.40%를 차지하였고 그 외 성욕결핍 및 상실이 4.65%, 성적혐오 및 쾌락결핍이 2.90%, 성기반응부전이 6.40%를 차지하였으며, 부족한 성 지식과 관련 정보에 대한 문의가 32건으로 전체의 18.60%였다고 하였다. 즉 여성들의 성지식 부족이 뚜렷하였으며 따라서 부인과 성기능장애 진료 시 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고 또한 부부간의 성적 부조화에 대한 문의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실제 진료에서는 부부치료가 요원하여 치료과정에서 배우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학적,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또한 강조하였다.

김²²⁾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여성 성기능장애 피험자 모집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의 대표적 평가척도인 한국판 FSFI(Female Sexual Function Index)를 이용하여 성생활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30-45세 사이의 기혼여성 40명의 FSFI 점수 평균값과 점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 한국 여성의 성기능장애에 대한 임상연구 피험자 선정기준으로 FSFI 점수 26점을 기준으로 선택하거나 이를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한 값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2. 중국 연구

여성 성기능장애와 관련한 중의학 논문은 총 18편이었으며, 그 중 임상연구가 1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연구가 5편이었고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는 없었다.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중의학 연구 목록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tudies on Female Sexual Dysfunction

Author	Title	Year	Publication Journal
夏耀全, 李美鶯	腹逐瘀湯治療女性性功能障礙舉隅	2002	陝西中醫
丁禹占 等	龍膽瀉肝湯治療女性性功能障礙舉隅	2002	中國醫藥學報
丁禹占 等	女性性功能障礙從肝辨治舉隅	2002	中國醫藥學報
張曉金	從腎論治女性性功能障礙	2002	中醫研究
陳秀春 等	女性性喚起障礙的辨證論治	2002	光明中醫
張越林	泌乳素與女性性功能障礙的關係探討	2002	福建中醫藥
齊會英, 付興鋒	從肝論治女性性功能障礙	2003	甘肅中醫
關艷冰	陰道痙攣的診治體會	2004	中國性科學
劉宏奇	異痛寧方灌腸治療子宮內膜异位症性交痛的臨床觀察	2004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劉宏奇 等	异痛宁栓治療子宮內膜异位症性交痛30例臨床觀察	2004	中医外治雜誌
丁禹占,朱之升	毓麟珠加減治療女性性功能障礙舉隅	2005	中華中医藥雜誌
黎志遠 等	中藥辨証治療女性性欲低下58例臨床研究	2006	中國性科學
桑海莉 等	千金婦宝治療女性性功能障礙臨床觀察	2006	山東中医雜誌
王省, 王雪梅, 于紅	針灸治療性交痛案	2006	上海針灸雜誌
繆喬, 吳童	女性性功能障礙疾病的中医診治	2007	福建中医藥
龐保珍,趙煥云	中医外治女性性功能障礙的辨証分型及治療	2007	中國性科學
周金花	女性性功能障礙從肝論治芻議	2008	浙江中医雜誌
周長金	非淋菌性泌尿生殖道炎性交痛不孕一例	2009	中國性科學

1) 임상연구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중의학 임상연구는 총 13편으로 이 중 증례논문이 7편, RCT논문이 3편, 이외 기타 임상연구가 3편 있었다.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중의학 증례논문은 7편이 있었는데 少腹逐瘀湯加減方, 毓麟珠加減方, 龍膽瀉肝湯加味方을 이용하여 여성 성기능장애를 치료한 증례논문들²³⁻²⁵⁾과 여성 성기능장애의 肝을 중심으로 한 辨證施治의 대표적 유형과 증례를 보고한 논문^{26,27)}, 비임균성요도염이 동반된 성교통 환자에게 중서의결합치료를 시행한 증례논문²⁸⁾과 경미한 자궁경부염과 심리적 긴장상태가 동반된 성교통 환자에게 침구치료만을 시행하여 성교통을 치료한 증례논문²⁹⁾이 있었다.

夏 등²³⁾은 난관결찰술 후 발생한 성욕저하, 골반염과 난소낭종이 동반된 심부성교통, 난관염이 동반된 성교 후 출혈에 少腹逐瘀湯加減方을 사용한 총 3례의 증례를 보고하면서 골반 내 瘀血을 주된 병기로 한 여성 성기능장애에 少腹逐瘀湯이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丁 등²⁴⁾은 毓麟珠를 배란장애 환자에게 적용하는 중 부가적으로 여성 성기능장애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여성 성

기능장애에 毓麟珠加減方을 사용한 결과 효과가 탁월하였으며 이에 毓麟珠加減方으로 치료한 성욕저하 및 질정감장애 증례, 질건조증 및 성교통 증례, 질정감장애 증례 총 3례를 보고하고 毓麟珠가 精·氣·血 不足과 腎·肝·心機能不調(或兼脾虛)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라 하였다.

丁 등²⁵⁾은 외음음도염이 동반된 성교통, 만성 외음음도염이 동반된 질건조증과 성교통, 만성경부염이 동반된 성교출혈을 龍膽瀉肝湯加味方으로 치료한 증례를 보고하면서 龍膽瀉肝湯이 肝經濕熱下注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라 하였다.

丁 등²⁶⁾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경우 肝을 중심으로 한 변증치료가 유효함을 경험하고 대표적 증례를 보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肝鬱陰虛型의 성욕저하를 주소증으로 하는 여성성기능장애 환자에게 一貫煎加味方을 사용하여 치료한 증례, 肝鬱化熱型의 성욕상실과 질건조증을 주소증으로 하는 환자에게 逍遙散加減方을 사용한 증례, 肝經濕熱下注型의 외음음도염이 동반된 성교통 환자에게 龍膽瀉肝湯加味方을 사용한 증례를 보고하고 肝主疏泄과 肝藏血 등의 생리기능

과 足厥陰肝經의 유주부위 등으로 해석할 때 肝의 생리병리와 여성 성기능장애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周²⁷⁾ 또한 肝의 기능실조가 여성 성기능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肝을 중심으로 한 변증시치의 대표적 유형과 증례를 보고하고 肝과 여성 성기능과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肝氣鬱結型의 성욕감퇴증 환자에게 逍遙散加減方을 사용한 증례, 肝腎陰虛型의 질 건조와 성교통 환자에게 歸芍地黃湯加減方을 사용한 증례, 肝膽濕熱型의 성욕항진증 환자에게 龍膽瀉肝湯加味方을 사용한 증례, 心肝血虛型의 성교출혈 환자에게 二至丸合導赤散加味方을 투여한 증례, 寒滯肝脈型의 성욕저하와 陰冷 환자에게 煖肝煎加減方을 투여한 증례를 보고하고 임상에서 여성 성기능장애의 90%정도가 기능성 장애이고 정신심리인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심리치료로 억울된 감정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肝을 중심으로 疏肝解鬱, 補養肝血, 滋陰潛陽, 清肝瀉火, 煖肝散寒 등의 처방을 적절히 변증용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周²⁸⁾는 비임균성요도염이 동반된 성교통으로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여성 성기능장애 환자 1례를 양방치료와 한약치료, 그리고 성교육과 부부상담치료를 통해 치료한 예를 보고하면서 한약치료로 八正散加味方을 함께 투여한 것이 비록 단순항생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재발성비임균성요도염 치료에 더욱 효과적이었으며 이후 처방한 丹梔逍遙散合六味地黃湯은 腎陰虛兼肝鬱로 인한 성교통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교통 치료에 있어서 심리치료와 부부상담을 병행하여 부부간 화합을

도모하는 치료를 함께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王 등²⁹⁾은 경미한 자궁경부충혈과 백혈구가 동반된 질분비물 소견이 있는 심리적 긴장상태가 동반된 성교통 환자에게 침구치료만을 시행하여 성교통을 치료한 증례 1례를 보고하였다. 환자에게 毫鍼으로 曲骨穴에 회음부에 득기감이 도달하도록 1.2寸정도 刺入하고 會陰穴에 脹麻感이 오도록 0.8寸 直刺하여 두 경혈에 2분간 지속적 염전수기를 하여 자극한 후 會陰穴에 다시 30분간 艾條懸灸를 시행하고 양측 大敦穴을 刺絡한 후 三陰交에는 피내침을 고정하고 다시 옆드려 腰俞穴에 皮膚鍼으로 60차례 叩刺하고 10분간 부항시술을 하였다. 이러한 시술을 총 29회한 후에 증상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침구치료법을 통해 근육경련을 풀어주고 신경 흥분을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라 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의 中藥치료의 효과를 분석하는 임상연구가 3편 있었는데 질경련 환자 8명에게 심리상담, 부부성감집중훈련, 그리고 中藥치료를 병행한 후 치료효과를 분석한 논문³⁰⁾과 여성 성기능장애와 prolactin 수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진단된 성기능장애 여성들에게 抑乳湯을 처방하여 치료전후의 성기능개선효과를 분석한 논문³¹⁾, 여성 성욕저하 환자 58명에게 中藥辨證治療와 심리치료를 병행한 후 그 임상결과를 보고한 논문³²⁾이 있었다.

關³⁰⁾은 질경련 환자 8례의 임상치료효과를 보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상세한 병력조사와 심리상담, 부부성감집중훈련 그리고 調養衝任, 疏肝止癢하는

치법의 逍遙散加減方을 처방하는 종합치료를 시행하여 최종 8례 중 6례가 치유되었다고 하였다. 치료가 실패한 2례는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남편이 진료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성감집중훈련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즉, 질경련의 경우 진료에 남편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리상담과 부부성감집중훈련, 그리고 중약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張³¹⁾은 성기능장애로 내원한 여성들 74명을 대상으로 prolactin과 여성 성기능장애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들 중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진단된 성기능장애 여성들 52명에게는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전후의 호르몬 변화와 성기능개선효과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로 내원한 환자 중 고프로락틴혈증이 있는 경우가 70%에 달해 prolactin 수치 상승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었으며 모두 腎虛證에 속해 滋陰補腎, 調肝養血, 行氣通經하는 抑乳湯(鹿角膠, 肉蓯蓉, 何首烏, 當歸, 白芍, 蟲, 鬱金, 丹蔘 등 12味 약물)을 매일 1제, 하루 두 번씩 월경 5 일째부터 다음 월경 시작 때까지 복용하는 것을 1療程으로 하여 3 療程 동안 치료한 결과 prolactin 수치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E₂와 progesterone는 유의한 상승을 보였으며, 총 유효율은 84.6%였다고 하였다.

黎 등³²⁾은 中藥辨證治療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여성 성욕저하 환자 58례의 임상결과를 보고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腎陽虛損(14례), 腎陰不足(10례), 肝氣鬱結(12례), 心脾兩虛(11례), 痰濕壅盛(6례), 寒凝血瘀(5례)의 6가지 변증유

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右歸飲加減, 左歸飲加減, 柴胡疏肝飲或逍遙散加減, 歸脾湯加減, 蒼朮導痰湯或平胃散加減, 少腹逐瘀湯或溫經湯加減方을 처방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한 결과 총 유효율이 86.2%였으며, 특히 肝鬱氣滯型, 痰濕內困型, 寒凝血瘀型 등 實證이 치료과정이 짧고 비교적 효과가 좋았으며 腎陰陽兩虛型의 虛證이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와 관련한 중의학 RCT 논문이 3편 있었는데 기질적 질환이 없는 腎虛肝鬱型의 여성 성기능장애 환자에게 千金婦寶의 효과를 규명하는 무작위배정 실험군-대조군 임상시험연구³³⁾가 있었으며, 異痛寧方 保留灌腸치료³⁴⁾와 異痛寧栓(좌약)치료³⁵⁾의 자궁내막증환자의 성교통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두 편의 무작위배정 실험군-대조군 임상시험연구가 있었다.

桑 등³³⁾은 기질적 질환이 없는 腎虛肝鬱型의 여성 성기능장애 환자 200명에게 補腎疏肝, 益氣養血하는 효능이 있는 千金婦寶(海馬, 紫石英, 淫羊藿, 鹿角膠, 巴戟天, 川牛膝, 紫河車, 枸杞子, 銀杏葉, 人蔘鬚, 白芍, 玫瑰花, 白蒺藜, 香附, 炙遠志, 甘草)의 효과를 규명하는 무작위배정 실험군-대조군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군(n=120)에는 千金婦寶를 1회 6片, 하루 3회, 3개월을 1療程으로 하여 투약하고, 대조군(n=80)에는 methylphenidate HCl(중추신경 흥분제)을 1회 10 mg, 하루 1회씩 동일한 기간 동안 투약한 후 치료전후의 증상진단점수,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점수와 호르몬 변화를 살펴 최종 유효율을 살펴본 결과 시험군은 유효율이 95.0%, 대조군

은 86.25%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치료율을 보였으며 결론적으로 千金婦寶는 여성 성기능장애에 유효한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劉 등^{34,35)}은 異痛寧方 保留灌腸치료와 異痛寧栓(좌약)치료의 자궁내막증 환자의 성교통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두 차례의 무작위배정 실험군-대조군 임상시험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³⁴⁾에서는 시험군 30명에게는 異痛寧方 保留灌腸液(1劑, 150 ml/일; 三稜, 我朮, 元胡, 紅花, 吳茱萸, 仙靈脾, 皂角刺 등 각 15 g)으로 월경 후 2-3일경부터 시작하여 매일 총 20일을 1療程으로 하여 총 3療程을 시행하고 대조군 12명은 다나졸을 매일 하루 두 번 3개월간 복용하도록 한 후 유효율을 비교한 결과 시험군은 86.7%, 대조군은 91.7%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연구³⁵⁾에서는 보류관장이 아닌 좌약형태로 조제하여 異痛寧栓(三稜, 我朮, 元胡, 紅花, 吳茱萸, 仙靈脾, 血竭로 조성; 含生藥 7.5 g/ 2 g 枚)을 1회 2개씩 동일한療程으로 다나졸 복용 대조군과 호전율을 비교한 결과 시험군은 93.33%, 대조군은 91.67%로 역시 두 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성교통은 자궁후벽이나 더글라스와, 직장 등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결절양 병변이 존재하는 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소 병변부위와 가장 인접한 직장내로 活血化痰, 消散結하는 치료 약물을 투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異痛寧方은 이러한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성교통에 양호한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2) 기타연구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중의학 기타연구는 총 5편으로 중의학적 병태생리 및 변증론치, 그리고 외치요법과 관련한 의론을 제시하는 논문들이었다. 여성 성기능장애의 중의학적 병태생리에 있어서 腎과 肝을 중심으로 한 의론을 제시하는 논문들^{36,37)}과 여성 성기능장애는 腎陽虛證과 寒犯前陰證으로 변증치료해야 함을 제시한 논문³⁸⁾, 여성 성홍분장애의 중의학적 辨證論治를 제시하는 논문³⁹⁾과 여성 성기능장애의 변증에 따른 中藥外治療法을 제시하는 논문⁴⁰⁾이 있었다.

張³⁶⁾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생리병리와 치료법에 있어서 腎을 중심으로 한 치료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론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張은 《內經》과 《難經》에 언급된 관련 문장과 張景岳의 관련 醫論을 제시하면서 여성의 성기능장애는 腎과 天癸의 盛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치료에 있어서는 滋陰益精이 원칙이며 溫補命門火하되 陰中求陽하며 補腎하는 약물들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齊 등³⁷⁾은 성 생리병리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대표적으로 腎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존 이론과 달리 여성의 성 생리병리는 남성과 차이가 존재하며 여성의 성기능에 있어서는 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또한 중요하다는 의론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자는 肝이 先天이며 여성 성기능장애에 있어서는 肝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肝氣鬱滯와 肝血不足 등의 병기는 月經不調와 痛經, 閉經 등의 주요 병기가 될 뿐 아니라 성욕저하, 성기능감퇴 등과도 유관하며 여성의 경우 억울된 심리상태를

조절하고 肝氣를 소통시켜주는 것이 성기능 회복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繆 등³⁸⁾은 중의학적 병증유형상 陰冷, 陰寒에 속하는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중의학적 변증론치에 대해 고찰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중의학 고전에 근거하여 고전에 언급된 陰冷, 陰寒의 病因病機, 治療 등을 포함한 중의학적 배경을 제시하고 고전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腎陽虛證과 寒犯前陰證으로 변증하고 각각 補腎壯陽, 溫暖下焦하는 石英溫腎湯加減과 補腎壯陽, 溫經祛寒하는 五積散加附子를 사용한다 하였으며 이러한 중의학적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성행위치료(성감집중훈련법 등)등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陳 등³⁹⁾은 임상에서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였던 여성 성흥분장애의 辨證論治를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성 성흥분장애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기능성 장애가 많으며 중의학적 병증 유형 상 陰枯, 陰寒의 범주에 속하며 대표적으로 肝失疏泄證, 腎陽衰微證, 腎陰不足證, 氣血不足證으로 변증하며 각각 肝失疏泄證에는 疏肝解鬱, 益腎填精하는 柴胡疏肝湯加減方을, 腎陽衰微證에는 填精補腎, 溫腎壯陽하는 贊育丹加減方을, 腎陰不足證에는 滋補腎陰, 填精潤燥하는 菴蓉補腎湯加減方을, 氣血不足證에는 補益氣血, 化生津液하는 八珍湯加減方을 사용한다 하였다.

龐 등⁴⁰⁾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다양한 치료법 중 中藥外治療法을 소개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를 腎陽虛, 腎陰虛, 腎氣虛, 肝鬱氣滯, 脾虛, 心脾兩虛, 陰虛陽亢, 肝經濕熱로 변증분류하고 각각 변증유형에 따라 연구자들

이 창방한 右歸春暢丹, 左歸 駕春丹, 腎氣盛春丹, 柔肝合歡丹, 健脾啓春丹, 心脾壯春丹, 長壽春度丹, 清利春適丹이라는 外治處方을 사용하도록 하며 이들 처방은 각 구성약물들을 곱게 가루낸 후 1회 사용 시 10 g씩을 따뜻한 물에 개어 풀처럼 만든 후 거즈에 싸서 배꼽에 고정하고 3일에 한 번씩 갈아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여성 성기능장애의 中藥外治療法을 제시하면서 外治療法의 經絡傳道, 皮膚投入 등 원리와 外治療法의 장점, 그리고 향후 경피흡수제제의 발전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IV. 고찰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권위 향상과 개방적인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여성도 좀 더 성적으로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여성의 성건강이 여성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인정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성기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의식의 개방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임상에서도 과거에 비해 성기능장애와 관련하여 적극적 진료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30~50%에 달하는 높은 유병률을 고려할 때 임상에서 성기능장애를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를 접할 기회는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능장애 유병률이 남성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의 발전에 비하여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부족하였다. 이는 여성의 수

동적 성역할과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 사고의 영향, 여성의 성반응이 남성에 비해 심리적, 사회적, 생물학적 인자가 더욱 깊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는 점, 그리고 여성 성기능장애의 객관적 진단이 쉽지 않은 점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¹²⁾. 이러한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연구 부족은 성에 대한 보수적 시각으로 공론화하기 힘들었던 중국과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한 전통 한의학 분야에서 더욱 뚜렷하며 과거 한의학 문헌에서는 생식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성기능장애에 대해서는 논의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출산과 무관하거나 성행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해부학적 이상이 없다면 치료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¹⁶⁾. 이러한 그간의 연구 부족과 높은 유병률, 의료적, 사회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질병군에 비해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따라서 아직도 여성 성기능장애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성에 대한 의료 전반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성기능장애는 각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 관계를 가질 수 없는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성 반응은 심신의 과정으로 성기능장애의 원인으로 보통 심리적 과정과 신체적 과정 양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심인성 또는 기질적 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더 흔하게는 심리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⁴¹⁾. 여성 성기능장애는 전통적으로 DSM-IV의 분류에 따라 성욕구장애, 성흥분장애, 절정감장

애, 성동통장애로 분류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는 특정한 반응의 실조보다는 성적 쾌락의 결핍과 같은 성적 체험의 주관적 질에 대한 불평을 더 흔하게 나타내고 특히 성 반응에 있어 어느 한 요소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요소에까지 민감하게 그 결과가 파급되며, 또한 심리적 인자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¹⁾. 따라서 실제 임상에서 여성의 성기능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여러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임상과정에서 신체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과 다양한 배경적 인자들을 모두 고려한 체계적이고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양의학에서 여성 성기능장애는 정신과와 산부인과에 진료영역이 걸쳐 있어 환자의 접근성이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면이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경우 성기능장애의 신체적 요인과 정신심리적 요인을 모두 살펴볼 수 있는 학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환자의 접근이 쉬운 측면이 있다 할 수 있으며 특히 한방부인과적 접근이 우세할 수 있는 진료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¹⁵⁾. 또한 한약과 침치료 등 한방치료를 통한 전체적 심신의 조정과 국소 상태의 개선 그리고 성상담과 교육, 성치료 등이 병행된다면 좀 더 우수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근거마련과 체계적인 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한 최근 약 10년간의 국내외 한의학 연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고 향후 연구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사이트, 한국학술정보(K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의 국내 논문검색엔진과 중국학술정보원(CNKI)과 Pubmed를 이용하여 ‘여성성기능장애’, ‘성욕구장애’, ‘성흥분장애’, ‘절정감장애’, ‘성교통’을 중심으로 한 중국어, 영어 질병명과 관련 단어를 대표 검색어로 하여 2001년 이후 최근 약 10년간 국내외에서 발표된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총 2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모두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논문으로 중국 논문이 18편, 국내 논문이 8편이었다. 논문 유형은 총 26편의 논문 중 증례 논문과 RCT논문을 포함한 임상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연구가 1편, 문헌연구가 2편, 이외 기타 연구가 7편이었다.

여성 성기능장애와 관련한 한의학 문헌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2편의 논문이 있었는데,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방 부인과 영역에서의 임상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기존 문헌과 연구들을 바탕으로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양방적 고찰과 이를 통한 한의학적 임상과정을 제시한 논문¹⁵⁾과 심신의학적 질병군에 속하는 성기능장애에 대해 한방신경정신과적 관점에서 한의학적 병인병기와 변증론치, 침구치료 등을 고찰한 논문¹⁶⁾이 있었다.

실험연구는 1편이 있었는데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¹⁷⁾으로 토끼 질 평활근에 대한 홍삼 추출물의 이완작용과 기전을 규명하는 연

구가 있었다.

임상연구는 총 16편의 논문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루어진 3편의 논문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13편의 논문이 있었다. 이 중 증례논문은 총 7편, RCT논문이 5편 있었으며, 임상보고형태의 기타 임상 논문은 4편이 있었다. 증례논문은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특정 처방을 여성 성기능장애에 적용하여 유효한 효과를 발휘한 증례를 보고하면서 이들 처방의 임상 활용을 강조한 논문이 있었는데 기질적 질환이 동반된 골반내 瘀血을 주된 병기로 한 여성 성기능장애에 少腹逐瘀湯加減方을 사용한 증례논문²³⁾, 생식기 염증이 동반된 肝經濕熱下注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에 龍膽瀉肝湯加味方을 사용한 증례논문²⁵⁾, 그리고 精氣血不足과 腎肝心 기능부조로 인한 여성 성기능장애에 毓麟珠加減方을 사용한 증례논문²⁴⁾이 있었다. 두 편의 증례논문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肝을 중심으로 辨證施治의 대표적 유형과 증례를 보고하고 여성 성기능장애에 있어서 肝을 중심으로 한 辨證用藥이 유효함을 강조한 논문^{26,27)}이었다. 한 편의 증례논문은 정신적 긴장과 비임균성요도염이 동반된 성교통을 호소하는 여성 성기능장애 환자에게 중서의결합치료와 성교육과 부부상담치료 등의 종합치료가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논문²⁸⁾이었다. 마지막 한 편은 경미한 자궁경부염과 심리적 긴장상태가 동반된 성교통 환자에게 국소 침구치료를 시행하여 치료한 증례 논문²⁹⁾으로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연구 중 침과 관련한 논문은 이 논문이 유일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RCT논

문은 총 5편으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2편과 중국에서 발표된 3편의 논문이 있었다. 국내 연구는 홍삼의 성기능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 RCT논문으로 두 논문 모두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대조군 비교, 교차 임상시험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성기능저하를 호소하는 만 30세 이상 45세 이하 건강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⁹에서는 대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40-60세 폐경 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⁰에서는 홍삼이 유의한 성기능 개선 효과가 나타나 홍삼의 성기능 개선 효과에 있어서는 두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었다. 나머지 세 편은 중국에서 발표된 RCT논문으로 모두 무작위 배정,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형태로 세 편 모두 대조군의 경우 양약치료가 적용되었다. 腎虛肝鬱型의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補腎疏肝, 益氣養血하는 효능이 있는 千金婦寶의 효과를 규명한 연구³³와 자궁내막증환자의 성교통에 대한 異痛寧方 保留灌腸치료³⁴와 異痛寧栓(좌약)치료³⁵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었다.

나머지 기타 임상연구는 4편으로 한편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갱년기 여성의 성기능 개선에 대한 大造丸의 임상효과를 관찰한 전향적 무대조군 임상연구¹⁸가 있었다. 나머지 세 편의 중국 논문은 중약치료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질경련 환자 8명에게 심리상담, 부부성감집중훈련, 그리고 逍遙散加減方을 병행한 후 치료효과를 분석한 논문³⁰과 여성 성기능장애와 prolactin 수치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고프로락틴혈증으로 진단된 성기능장애 여성들에게 抑乳湯을 처방하여 치료전후의 성기능 개선 효과

를 분석한 논문³¹, 여성 성욕저하 환자 58명에게 中藥辨證治療와 심리치료를 병행한 후 그 임상결과를 보고한 논문³²이 있었다. 이들 모두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문헌연구, 실험연구, 임상연구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연구는 7편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발표된 2편의 논문은 인터넷 생활상담코너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성기능장애 및 관련문제를 분석하고, 부인과 진료에 있어 성 문제에 대한 진료시 제기될 수 있는 중요부분을 고찰한 논문²¹과 여성 성기능장애의 객관적 진단과 관련하여 건강한 성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판 FSFI의 점수를 분석하여 여성 성기능장애 피험자 모집기준을 제시하는 논문²²이 있었다. 나머지 5편의 논문은 중국 논문으로 모두 여성 성기능장애의 중의학적 병태생리 및 변증론치, 그리고 외치요법과 관련하여 주로 저자들의 임상경험에 입각한 의론을 제시하는 형식의 논문들이었다. 여성 성기능장애는 腎과 天癸의 盛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치료에 있어서는 滋陰益精이 원칙이며 補腎하는 약물들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론을 제시한 논문³⁶과 여성의 성생리병리는 남성과 달리 肝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중요하며 肝氣를 소통시켜주는 것이 성기능 회복에 중요하다는 의론을 제시한 논문³⁷, 陰冷, 陰寒에 속하는 여성 성기능장애는 크게 腎陽虛證과 寒犯前陰證으로 변증되며 이에 따른 중의학적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성행위치료 등을 병행하여야한다는 의론을 제시한 논문³⁸이 있었다. 또 여성 성기능장애 중 특히 성흥분장애의 변증론치를 제시하는 논문³⁹이 있었는데 성흥분

장애의 변증유형과 그에 따른 주요처방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한 편의 논문은 여성 성기능장애의 中藥外治療法을 제시하는 논문⁴⁰⁾으로 여성 성기능장애의 변증유형에 따른 외치처방과 사용법을 제시하고 외치요법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향후 경피흡수제제의 발전전망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약 10년간의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국내외 한의학 연구를 조사한 결과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매우 미진한 실정이었다. 여성의 성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여성 성기능장애의 높은 유병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의료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질병의 특성상 심신의학적 접근이 우세할 수 있는 여성 성기능장애에 대한 한방부인과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적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의학계는 근거중심의학(EBM)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근거중심의학은 환자에 대한 임상적 판단에 있어서 최신의 연구결과를 중요시하는 의학방법론으로 이는 질병의 메커니즘이나 병태생리학적 연구결과보다는 최신 임상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임상적 결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42,43)}. 즉 근거중심의학은 무작위배정의 전향적 대조군 연구결과와 그에 기반을 둔 종설연구를 우선적인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⁴⁴⁾.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처럼 여성 성기능장애에 관한 기존 한의학 연구들은 양적으로도 많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거중심의학에서 말하는 근거등급이 낮은 유형의 문헌연구와 증례논문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여성 성기능장애가 보다 한

방부인과적 영역에서 주요 진료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근거논문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한약 및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무작위 배정 전향적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을 통한 높은 근거 가치를 지닌 연구결과물들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중국, 기타 국외 검색의 검색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연구를 최대한 빠짐없이 검색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국내외 논문검색엔진의 검색기능의 질적 차이와 관련 병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연구들에 언급된 다양한 질병명과 관련 단어를 검색어로 하여 누락되는 논문이 없도록 노력하였다. 두 번째는 기질적 질환이 동반된 성기능장애 관련 연구도 모두 결과에 포함시킨 점이다. DSM-IV에 따른 여성 성기능장애의 분류는 기질적 장애 또는 질병에 기인하지 않는 성기능장애를 분류한 것으로 진단에 있어서 기질적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성기능장애는 이들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여성 성기능장애의 임상에서 심인성 또는 기질적 원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치료에 있어서도 기질적 질환과 성기능장애를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한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질병군인 여성 성기

능장애와 관련하여 한의학계에서 그간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경향성만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또한 관련 논문검색 결과 연구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논문유형이 근거등급이 낮게 평가되는 연구유형들이었기 때문에 논문유형에 따른 양적 평가만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연구의 향후 연구 방향 모색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 결 론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최근 국내외 한의학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대표 의학논문 검색사이트를 통해 2001년 이후 약 10년간 발표된 관련 논문을 검색한 결과 총 26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모두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논문으로 국내 연구가 8편, 중국 연구는 18편이었다. 이들 연구의 논문유형은 임상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실험연구가 1편, 문헌연구가 2편, 이외 기타 연구가 7편이었다. 임상연구 중 증례논문은 7편, RCT 논문이 5편이었으며 임상보고형태의 기타 임상논문이 4편이었다.

이와 같이 최근 약 10년간 여성 성기능장애 관련 한의학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부족하였다. 여성 성기능장애는 부인과 심신질환에 속하는 대표적 질환으로 한의학적 접근이 우세할 수 있는 질병군이다. 따라서 여성 성기능장애가

한방부인과적 영역에서 주요 진료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 근거논문들을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한약 및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무작위 배정 전향적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을 통한 높은 근거 가치를 지닌 연구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 투 고 일 : 2011년 7월 28일

□ 심 사 일 : 2011년 8월 1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8월 8일

참고문헌

1. Kim JK et al.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activity according to sexual satisfaction of wife and husband after hysterectomy.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2;6(1): 71-82.
2. 배정미, 민권식, 안숙희. 여성 성기능장애의 예측 모형. 대한간호학회지. 2007;37(7):1080-90.
3. World Health Organizati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vailable from: URL:http://www.who.int/reproductive-health/gender/sexual_health.html.
4. Lutfey KE et 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exual activity and function in women: results from the Boston Area Community Health (BACH) Survey. Arch Sex Behav. 2009;38(4): 514-27.
5. Ponholzer A et al. Female sexual

- dysfunction in a healthy Austrian cohort: prevalence and risk factors. *Eur Urol.* 2005;47(3):366-74.
6. Laumann EO, Paik A, Rosen RC. Sexual dysfunction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predictors. *JAMA.* 1999; 281(6):537-44.
 7. Song AH et al.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female sexual dysfunction in young Korean women; An internet-based survey. *Journal of Sexual Medicine.* 2008;5:1694-701.
 8. 김혜영, 이은숙. 기혼여성의 성기능장애와 관련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10; 19(3):329-38.
 9. 이홍식 등. 기혼 남녀의 성기능 장애 빈도. *대한의학협회지.* 1987;30:1017-22.
 10. 손인숙. 여성 성기능장애. *대한산부회지.* 2006;49(10):2043-54.
 11. 민권식. 여성 성기능 장애의 최신지견. *여성건강.* 2004;5:81-90.
 12. 김혜은, 조유리. 박혜순. 비만 및 복부비만과 여성 성기능 장애와의 관련성. *대한비만학회지.* 2007;16(4): 170-6.
 13. 박경희 등.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수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2;15(4):128-35.
 14. 윤영진 등.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수재 논문 분석.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11;24(2):97-103.
 15. 김동일. 여성의 성 기능장애와 이의 임상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2):148-70.
 16. 이재혁. 한방신경정신과영역에서의 성 기능장애에 대한 고찰.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3;6:61-73.
 17. Kim SO et al. The effect of Korean red ginseng extract on the relaxation response in isolated rabbit vaginal tissue and its mechanism. *J Sex Med.* 2008;5:2079-84.
 18. 이정은 등. 갱년기 여성의 질 건조증과 성만족도에 미치는 大造丸의 임상효과 보고.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5;18(3):203-14.
 19. 김동일, 최민선, 안홍엽. 여성의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성기능에 대한 홍삼의 효과 및 안전성 연구. *고려인삼학회지.* 2009;33(2):115-26.
 20. Oh KJ et al. Effects of Korean red ginseng on sexual arousal in menopausal women: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crossover clinical study. *J Sex Med.* 2010;7:1469-77.
 21. 김동일, 광금화, 이태균. 부인과 진료에 있어서의 성 문제에 대한 제기와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 연구 -한 인터넷 성상담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 14(2):135-47.
 22. 김동일. 여성의 성기능장애 평가 척도인 한글판 FSFI 척도의 임상시험 적용 기준에 관한 기초 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3):121-31.
 23. 夏耀全,李美鶯. 少腹逐瘀湯治療女性性功能障礙舉隅. *陝西中醫.* 2002;23(5): 458-9.
 24. 丁禹占, 朱之升. 毓麟珠加減治療女性性功能障礙舉隅. *中華中醫藥雜誌.* 2005; 20(1):48-9.
 25. 丁禹占 等. 龍膽瀉肝湯治療女性性功能障礙舉隅. *中國醫藥學報.* 2002;17(5): 294-5.

26. 丁禹占 等. 女性性功能障礙從肝辨治舉隅. 中國醫藥學報. 2002;17(3):170-1.
27. 周金花. 女性性功能障礙從肝論治芻議. 浙江中醫雜誌. 2008;43(5):262-3.
28. 周長金. 非淋菌性泌尿生殖道炎性交痛不孕一例. 中國性科學. 2009;18(10):24-5.
29. 王省, 王雪梅, 于紅. 針灸治療性交痛案. 上海針灸雜誌. 2006;25(2):39.
30. 關艷冰. 陰道痙攣的診治體會. 中國性科學. 2004;13(12):14-5.
31. 張越林. 泌乳素与女性性功能障礙的關係探討. 福建中醫藥. 2002;33(3):5-6.
32. 黎志遠 等. 中藥辨證治療女性性欲低下58例臨床研究. 中國性科學. 2006;15(11):30-2.
33. 桑海莉 等. 千金婦寶治療女性性功能障礙臨床觀察. 山東中醫雜誌. 2006;25(6):383-5.
34. 劉宏奇. 异痛宁方灌腸治療子宮內膜异位症性交痛的臨床觀察.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04;10(5):78-9.
35. 劉宏奇 等. 异痛宁栓治療子宮內膜异位症性交痛30 例臨床觀察. 中醫外治雜誌. 2004;13(4):41.
36. 張曉金. 從腎論治女性性功能障礙. 中醫研究. 2002;15(3):4-5.
37. 齊會英, 付興鋒. 從肝論治女性性功能障礙. 甘肅中醫. 2003;16(10):30-1.
38. 繆喬, 吳童. 女性性功能障礙疾病的中醫診治. 福建中醫藥. 2007;38(4):59-60.
39. 陳秀春 等. 女性性喚起障礙的辨證論治. 光明中醫. 2002;3:1.
40. 龐保珍, 趙煥云. 中醫外治女性性功能障礙的辨證分型及治療. 中國性科學. 2007;16(9):31-3.
41. 한방여성의학 편찬위원회. 한방여성의학 1. 서울:도서출판 정담. 2007:395.
42. 김정훈 등. EBM 기반구축을 위한 귀비탕 연구 문헌 분석. 동의신경과학회지. 2009;20(3):205-16.
43. 김정훈 등. EBM 기반구축을 위한 사물탕 연구 문헌 분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9;23(4):779-88.
44. 김동일. 한의학 관련 학회지의 월경통 관련 논문에 대한 종설.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8;21(1):134-49.